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간지럽거나 두드러기 등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은 특정 항원에 민감한 사람이 해당 물질에 접촉할 때 나타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 항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경우 매우 격렬하고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체내 기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일종의 쇼크 상태를 겪게 된다.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인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인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글 편집실

가볍게 생각하다가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영화 <지구를 지켜라(2003)>



폐광촌 양봉가의 지구 지키기 분투기

2003년 개봉한 영화 <지구를 지켜라> 속 주인공인 병구는 강원도 폐광촌, 아무도 오지 않은 폐쇄되고 조용한 곳에서 벌을 키우며 살고 있다. 그런 병구는 외계인이 곧 지구에 쳐들어 와 위협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늘 불안해한다. 어렸을 때부터 늘 외계인을 두려워하던 병구는 TV를 통해 개기월식이 곧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 개기월식에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지 못하면 지구에 크나큰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랜 관찰 끝에 외계인이 분명한 유제화학의 사장 강만식을 납치해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에서 하루아침에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어 기상천외한 고문을 당하게 된 강만식. 폐탄광 안에 강만식을 감금한 병구는 머리카락이 외계인과 소통하는 안테나라고 생각해 강만식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고, 때밀이 타올로 피부에 상처를 낸 뒤에 물파스로 고문하기도 한다. 강만식은 상상도 못할 고문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병구가 폐탄광 안에 수직해 놓은 각종 외계인 관련 자료를 보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내 자백하기 시작한다. 한편, 경찰청장의 사위인 강만식이 납치되자 경찰 내부는 시끄러워지고 한 때 이름을 날렸다가 비리 사건으로 물러나 있던 추형사는 자신만의 추리로 병구를 범인으로 지목해 추적해 온다. 점점 다가오는 형사들과 경찰들의 추적. 그리고 병구와 강만식의 대결. 하지만 병구는 강만식이나 외계인, 형사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이 키우는 벌침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량 인자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는 Ana(반대)와 Phylaxis(방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로 단어 뜻 그대로 생체의 면역계 방어 작용이 반대로 생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말해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특정 물질에 극소량이라도 접촉할 경우, 전신에 심한 반응이 일어난다. 대부분 즉시 또는 30분 안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증상으로는 기침, 흉통, 입과 손발에 저린 감각, 빈맥, 소양증을 동반한 발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즉시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호흡 곤란, 저혈압, 의식 소실로 이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 원인이 되는 물질로는 크게 ▲항생물질(페니실린계, 세페계) ▲호르몬(인슐린, ACTH) ▲면역 치료에 이용하는 알레르겐(진드기, 진균, 꽃가루) ▲벌독, 뱀독 ▲음식물 알레르겐(계란, 땅콩, 메밀, 우유 등) ▲라텍스(Latex)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복숭아, 영화 <유전>에서는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중 일종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아나필락시스는 그 원인도, 반응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 인자가 아주 소량이어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반응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알레르기 요인과 증상을 알아두고 주변에 대처 방법을 함께 알려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빠른 처치 방법은 에피네프린 주사로 이는 빠른 약효로 증상을 완화해 유용하다. 이후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을 통해 치료한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 체크 리스트

- 호흡기: 기관지가 경련과 수축을 반복하여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숨 쉴 때 쌉쌉 소리가 남
- 순환기: 혈압의 감소로 두통, 어지러움, 실금
- 소화기: 메스꺼움, 구역질, 복통
-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이나 혀의 부종